

불교복지, 신 성장동력 '고민'

복지 통한 국민소통이 불교발전 초석... 시대적 의제 선도 위한 고민 더 치열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1032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3.2%였던 불교 인구는 2005년 기준 1072만6000명(22.8%)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불자들의 숫자가 감소세를 보여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인재 불사를 통한 젊은 세대 포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불교 사회복지의 부처님의 자비행과 중생 제도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안임과 동시에 포교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불교복지 통해 국민과 소통 시도

경기도 군포시의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일요일이면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다. 이곳 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일요일이면 문을 닫지만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매화복지관은 일요일에도 복지 서비스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매화복지관은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2006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요(주말)사업'을 실시해 왔다. 사업 실시 후 복지관 이용자가 23% 가량 증가했다.

15년째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수 어르신(70)은 한 사람의 포교사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웃 종교를 믿던 친구들이 김 어르신에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불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활동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전할 수 있다.

2010년 12월 2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특별 세미나에서 이혜숙 금강대학교 조빙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중 사자에 관한 조사결과 8.32%만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복지로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작 복지 실무자들조차 불교에 무관심한 것이다.

이혜숙 교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종사자들에게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은 결국 불교에 대한 편향을 불러일으킨다.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지역 사람들이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활동이 부족해서 불교 편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계, 저변확산 위한 노력 다각화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 사회복지



2009년 조계사에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하고 있다.

지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산하고, 사회복지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어린이 포교의 일환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키키키 체육교실'을 진행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복지가 취약한 불교계 현실에서 어린이 포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네발 JGO센터 사찰과 일반 사회복지법인 '타카타후쿠시교교카이'와의 교류협력 등 국제 복지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미래 한국 사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 문제가 핵심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재단은 또 불교의 특성을 살려 현대인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한 명상 등 마음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병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불교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이나은 기자

특별기고

사회복지 우선하면 포교문제 없다

우리나라 종교인구 중 불교 인구는 아직까지 많아 보인다. 그러나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이나 서울의 강남 등 몇몇 지역에서 불교 인구는 이미 개신교와 천주교에도 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선 위기감이 든다.

한때 포교라고 하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열심히 조석예불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위축된 불교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여러 요구,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큰 원인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은 단위 사찰의 역할이 종단의 역할이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역량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단위 사찰들의 포교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단위 사찰의 포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은 지역에 기반 하는 사찰을 가지고, 사찰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분야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하느냐에 따라, 지역에서 그 사찰의 성패가 나누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사회복지란 무엇일까?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불교가,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전인적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참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복지사업의 시작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그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전래 초기의 특권층을 위한 불교가 서민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도 중생구제의 가르침이 실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사회복지 활동은 미약했다. 여러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도 늦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서구의 종교들은 정권의 도움으로 의료, 교육, 구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차이가 지금의 사회복지현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장 이전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불교계의 사회복지현황은 어떨까? 1980년대 이전까지의 불교 사회복지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사찰이 직접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외에도 국가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복지시설, 여러 복지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사찰과 종단, 한국 불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일반인들에 대한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어 포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큰 범위에서 중생구제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 전법과 포교의 방편으로 사회복지에 관해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갔으면 한다. 가령 사찰이 포교 방법을 고민할 때, 사회복지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단위사찰에서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풍부한 인적 자원이다.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자의 절대 수치는 많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활동에 관심 있는 신도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은 소속 사찰에 대한 자부심, 신심의 심화 같은 긍정적 작용을 한다. 문제는 조직화다. 포교의 관점에서 교육하고 조직한 다음, 참여로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사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적 자원도 있다. 시설이나 후원금 같은 것이 모두 해당된다. 신도들의 보시금 일부는 후원금화 하는 것은 신도와 사찰 양쪽에 모두 긍정적이다. 사찰 시설 자체를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교사회복지란 불교가 하는 사회복지다. 불교는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신도, 사찰이 될 수도 있다.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 불교의 가치관으로 해답을 주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포교도 역시 그렇다.

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장을 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사찰이 직접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외에도 국가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복지시설, 여러 복지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사찰과 종단, 한국 불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일반인들에 대한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어 포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큰 범위에서 중생구제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 전법과 포교의 방편으로 사회복지에 관해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갔으면 한다.

가령 사찰이 포교 방법을 고민할 때, 사회복지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단위사찰에서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풍부한 인적 자원이다.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자의 절대 수치는 많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활동에 관심 있는 신도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은 소속 사찰에 대한 자부심, 신심의 심화 같은 긍정적 작용을 한다. 문제는 조직화다. 포교의 관점에서 교육하고 조직한 다음, 참여로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사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적 자원도 있다. 시설이나 후원금 같은 것이 모두 해당된다. 신도들의 보시금 일부는 후원금화 하는 것은 신도와 사찰 양쪽에 모두 긍정적이다. 사찰 시설 자체를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교사회복지란 불교가 하는 사회복지다. 불교는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신도, 사찰이 될 수도 있다.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 불교의 가치관으로 해답을 주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포교도 역시 그렇다.

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

불교계 복지시설 15년 새 10배 이상 증가

이웃종교에 비해 여전히 부족 중단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분주

불교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이웃종교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45년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을 시작,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개관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신)이 2010년 12월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불교복지시설은 958개다. 한국천주교회 통계(2009)에 의하면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은 1264개이며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009년 기준으로 기독교의 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감리회의 복지시설은 1097개, 원 불교는 190개로 조사됐다.

불교복지시설은 2006년 477개에 비해 481개소가 증가했고, 이는 15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교사회복지의 성장에 따라 각 중단별 복지법인은 법인만의 특화된 사업을 전개해 복지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모금캠페인 '만행(萬行)'과 '의지나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만행'은 만원의 행복의 졸업발로 후원참여자들의 기부금을 통해 난치병환아, 저소득 다문화

가정, 국내·외 빈곤 결식아동, 긴급재난 구호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만행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해 4월 난치병 환아들이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해 사찰 및 신도들의 자비나눔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의지나눔 셰어윌(Sharewill)사업을 전개해 경험의 폭이 제한돼 미래의 꿈과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은 지역 어린이와 저소득계층 및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단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정된 400여 명의 아동에게 영양증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도강좌를 통한

불교 정서 함양과 웰다잉 프로그램에 불교적 세계관 접목 등 복지기관별 다양한 불교특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이사장 혜정 정사)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진각복지 119'를 통해 복지사각에 놓인 소외이웃들에게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2000년부터 진행돼온 이 사업으로 빈곤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138세대에게 5300여 만 원이 지원됐다.

진각복지재단은 또한 '전국폐사지투어 콘서트', '1페사지1지킴이' 사업을 펼쳐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활동을 장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기범·이나은 기자

바른정법.바른인연 II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서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담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행(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서 경전과, 전수경, 이산해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테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기 위해 구병시식, 천도제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제를 지내보니 말씀이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으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털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 법 . 승 . 정법 .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 633-6555

대 중 일 등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 식품 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 식품 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 교육원

-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 호 남 교 육 원 063-288-5623
- 전 북 교 육 원 063-854-1060
-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